

## 화병(火病)의 기원에 관한 고찰\*

-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교실

김종우 · 현경철 · 황의완

### I. 緒 論

화병은 억울한 감정이 장기간 누적된 상태에서 폭발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민간에서 회자되어 온 병명이다<sup>3)</sup>. 한의학에서는 화병을 기본적으로 火의 역동성을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해석하여 연구해 왔다. 즉 한의학에서는 초창기에서부터 火에 대한 개념이 있어 왔기 때문에 火病을 광범위하게 火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질환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火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정신과 연관성이 많음으로 인하여 火病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면서 火의 성질을 가진 질환으로 설명하고 있다<sup>7,8)</sup>. 또 최근의 연구에서 화병은 원인과 질병양상, 경과가 일정한 형태를 가진 질환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결국 화의 병이라는 넓은 의미의 해석보다는 증후군의 양상을 띤 독립적인 질환으로 보고 있다<sup>4,5)</sup>. 화병을 독립적인 증후군으로 보려는데 대하여는 정신의학자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sup>10,11)</sup>.

화병이 비록 1970년대 이후에 독립적인 질환명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나, 화병이라는 용어는 그 이전에 이미 민간에서 사용이 되어 왔다. 한방의 문헌에서는 명나라의 [경악전서]에서 최초로 火病에 대한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질환으로의 연구는 1980년대로부터 진행되고 있다<sup>12)</sup>. 정신의학자의 연구도 1980년대를 시작으로 임상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었으며, 1994년에는 미국 정신의학회

에서 문화관련증후군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다<sup>16-18)</sup>. 그러나 화병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화병의 개념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여러 임상적인 연구가 시행되어 왔으나, 火病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한 醫史學의 연구는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화병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민간에서 사용되어 왔던 점을 중시한다면, 이전에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문헌적 고찰을 통해 화병의 기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작업은 화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화병과 문화와의 관련여부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이번 연구는 화병의 기원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sup>15)</sup>과 [고려사]<sup>14)</sup>에서 화병과 漢字的인 의미에 상관이 있는 火病, 火症, 鬱症, 鬱病, 鬱火를 검색하고, 이를 원인, 병리, 증상, 치료 등으로 분석하여 과거에 사용되어온 화병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뜻과의 비교를 통하여 화병의 개념을 적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 1. 연구대상

[조선왕조실록]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고려사]에서도 검색하였다. 화병에 대한 검색을 위하여 검색어로서 화병과 연관이 있는 火病, 火症(火證), 鬱症, 鬱病, 鬱火를 사용하였다.

\* 이 연구는 1998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 졌음.

## 2. 연구방법

검색된 자료를 이용하여 1) 역사적 측면으로 시대에 따른 화병에 관한 기술을 알아보고, 2) 화병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 3) 병의 원인적인 측면, 4) 병의 증상적인 측면, 5) 병의 치료적인 측면을 조사하고, 논의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화병 개념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 Ⅲ. 研究結果

[조선왕조실록]에서 화병에 대한 기록을 火病, 火症(火證), 鬱症, 鬱病, 鬱火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 火病이 6예, 火症이나 火證이 21예, 鬱火나 火鬱이 3예로 나타났고, 화병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火가 13예, 忿怒가 1예, 心이 7예, 그리로 기타가 2예로 나타났다. 火病이라는 용어는 선조시대에 처음 나타나 있고, 인조시대 이후에는 火症이나 鬱火 등 다른 용어로 기술되어 있었다. 또한 화병에 관한 기술의 빈도를 보면, 숙종 시대에 17번으로 가장 많았고, 광해군 시대에 11번 있었다 (표1).

그러나 [고려사]에는 이러한 검색어를 통한 검색이 되지 못했다.

화병에 관한 용어의 기술을 보면 火病, 火症, 火證, 鬱火나 火鬱이 주로 사용되었다. 또 心과 연관된 화병에 대한 기술을 많이 볼 수 있는데, 心得疾, 心疾, 心熱, 鬱拂於人心, 心病, 心胸起火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心과 熱 그리고 鬱과 연관하여 病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火와 연관되는 설명에서는 火之動, 火升, 火熱로써 火의 성질에 관한 기술이 있으며, 원인과 증상에 있어 一時之火와 膈間熱火之宿証으로 설명하고 있고, 膈火, 痰疾이라는 병명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치료에 있어 治火를 사용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밖에 激怒를 병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화병을 太陽症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표 2,3).

표 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화병에 관한 기술

시대	火病	火症 火證	鬱火 火鬱	火(痰)	忿怒	心	其他	횟수
중종						1		1
명종				1		3		4
선조	1					2		3
광해군	5	6						11
인조		1						1
현종					1	1		2
숙종		11	1	5				17
경종		1	1	4				6
영조		2					1	3
정조			1	1			1	3
순조				1				1
헌종				1				1
횟수	6	21	3	13	1	7	2	53

표2. 火病, 火症, 鬱症, 鬱病, 鬱火의 용어를 사용한 내용

	年 代	用語	內 容	分 析
1	선조 37/8/7	火病	予病火病也自見啓辭心氣益傷喉門轉閉痰氣益壅	인식, 증상, 치료
2	광해 2/4/23	火症	自少素多熱氣積傷爲火症 此非朝夕之疾 雖不至大段而常患鬱熱以此亦未得頻數開筵耳	원인, 치료
3	광해 10/6/17	火證	予素多火證而近回疏筋紛沓心恙尤劇不得察見矣	인식, 증상
4	광해 11/9/19	火症	予素患火症 凡疏筋啓辭只添予火症而已 秋成後薄武 案乃安不忌危之意也	인식, 치료
5	광해 12/10/18	火病	予素多火病近因軍國多事 皇計疊到 驚擾震越不敢言病	인식, 치료
6	광해 12/10/22	火症	予病已歇所患都是火症日候溫和郊外舉動亦似解鬱	인식, 치료
7	광해 13/1/17	火病	近來疏筋呈辭途日紛沓如予素患火病人實難酬應	인식, 치료
8	광해 13/6/16	火病	予近回疏筋火病尤劇鄉姑停如此筵子可矣	인식, 치료
9	광해 13/6/18	火病	近日兩司啓辭辭日暮入啓以致予火病尤劇有不能堪今後早胃入啓	인식, 치료
10	광해 15/1/22	火症	予病火症也豈易平復腫症即較歇而頭痛一樣勿爲來問以便慎攝	인식, 증상, 치료
11	광해 15/2/19	火病	予證火病也合眼靜攝然後可望平復	인식, 치료

年代	用語	內容	分析
12	광해 15/2/19 火證	因國家多事一刻不得靜攝馴致火證日甚平復無期姑停問安使予靜攝	인식, 치료
13	인조 24/2/5 火證	臣鳴吉近火證稍有勞動驚悸戰掉必經宿乃定再昨寅廳陳啓時卒然而劇	증상
14	숙종 25/10/4 火證	予自在春宮已有火證其後連遭岡極之痛且早當萬機多值存飢慮重心繫釋盡白性又不緩事務當前不能置之飢飽失時勞瘁太過近來眩暈發作如在舟車上移時乃定如是而精神筋力餘存幾何	인식, 원인, 증상, 치료
15	숙종 29/8/13 火症	猝然不豫胸膈痞塞(疝氣)凡人寢食各有其時而予則不然性度不能寬緩凡事不欲拋置文書之出納者必數三通閱聽斷無滯以致午後始食夜分不寐火症日熾以至於此	원인, 증상(결증)
16	숙종 30/12/11 火症	(咳嗽)予之火症根抵已久而年歲向衰日益深痼凡人一時之疾恙易治而最難治者火症也... 凡治火之道調息爲上湯九次之	인식, 증상(결증), 치료
17	숙종 31/10/29 火症	勿爲入診噫火與元氣本不兩立予之火症向衰益痼 五六年間頓覺肌膚日就消鑠其勢必漸至焦枯也	인식, 증상, 치료
18	숙종 31/10/29 火症	夫火之爲症異於他病而逐年增加反覆沈痼... 予之火症漸就難醫強而行之必有後悔	인식, 치료
19	숙종 31/10/30 火證	凡疾病之中最難治者火證也積歲沈痼肌膚消鑠終得全安者未之聞也	증상, 치료
20	숙종 31/11/1 火證, 火症	上常以火證爲教..... 殿下火症源委固非細而至若機務之煩豈無省簡之道乎..... 殿下本有火熱升降之病..... 聖上火證源委矣臣聞傳曰氣煩卽慮亂視墮卽志滯今若省減煩務簡以制煩自有其效	원인, 치료
21	숙종 31/11/02 火症	殿下欲爲調養而反添火症矣吏曹判書洪受濬曰殿下雖以火證爲救治病之方自有道理	원인, 치료
22	숙종 31/11/8 火症	副提學鄭滿..... 追上疏以火症專由心不得其正纏繞陳戒其略曰伏願聖明清心澄慮愈懲誠正之功恬靜勿忽修養之方凡於接物之時應事之際靜以制動簡以御煩	원인, 치료
23	숙종 31/12/15 火症	伏見下藥房之批有火症曰... 凡人火盛由於水虧水虧由於腎虛而腎虛之證多由於慎攝之疎	원인, 치료

年代	用語	內容	分析
24	숙종 36/1/12 火症	蓋膿潰後一向寒熱明是火症火者必煩靜慮調攝而後寒熱庶或不發寒熱不發而後水刺漸次加進	증상, 치료
25	숙보 42/4/10 鬱火	大抵恒人久病一切省事則有鬱火至如殿下常時動政聖情習慣而丙枕之側萬幾都屏但令女侍執御間然靜處未必有得於節宣調攝之方	인식, 치료
26	경종 1/10/15 火鬱	今以火鬱之例症遂至於釋務就閑古今天下寧有是哉	치료
27	경종 1/10/16 火症	子之病勢若可酬應則何至於此耶近來火症漸升不得覺察一日之內頻發將之於使左右考例舉行之境	인식
28	영조 1/4/9 火症	火症漸甚不得覺察至於使左右考例舉行之教	증상
29	영조 38/5/22 火症	世子泣對曰 此果臣之本病火症也上曰 寧爲發狂 則豈不反勝乎 命退出	인식, 증상
30	정조 23/7/10 鬱火	此非但尋常眼病有思慮有事爲如期輒發背脊上太陽經及左右脇間有氣若然炬..... 此莫非太陽經鬱火充滿之致緣子學力未到志氣不能制血氣故也	증상

표3. 火病, 火症, 鬱症, 鬱病, 鬱火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화병과 연관된 내용

年代	用語	內容	分析
1	중종 31/2/1 心得疾	陳皇后進爵而怒其色三進不飲終乃擲杯卽令謁遂與張皇后入別房至夜深然後使之退去陳皇后以此用心得疾未幾而崩逝矣	원인
2	명종 11/7/2 心疾	戲奸婢子使公主益重心疾	원인
3	명종 19/9/17 心熱	但予以弱質非徒微恙頻發心熱亦常留留調病之道固不可尋常處之	인식
4	명종 21/9/12 火之動	丹溪朱震亨元之名醫也亦以正心收心養心防心火之動爲勝於藥餌勝云	치료
5	명종 21/10/05 鬱拂於人心	銓之罪惡彰著已以鬱拂於人心憤激於公論甚矣	원인
6	선조 26/7/15 心病大作	遊激憤傷和讓不成而自分必死心病大作滿身渾浮	원인, 증상

年代	用語	內容	分析
7 선조 29/4/10	心胸 起火	此言與廣幅人所言相傳紛紛傳說 未知孰是不能究確心胸起火大概 好夕間不違將決乞擇善馬俱騎卜 入送即祝手祝手	인식
8 현종 1/6/30	心熱	爾等之意雖欲激我心熱以添病之 根子之死生安危亦係於天	원인
9 현종 9/10/3 현개 9/10/3	激怒 得病	非喜非但常時不順舅姑其姑激怒 得病終至不救之	원인
10 숙종 36/1/10	火升	下教政院曰如前火升頭疼有加口 味且厭	증상
11 숙종 43/1/27	治火, 有火	溫水本草雖以治攀縮及手足不遂 爲言而於治火則殊無當且多失津 液.....凡人入之就浴者虛而有火則反 多瀉氣助熱之害	치료(온천)
12 숙보 43/7/24	疾疾	殿下積年疾疾客火易象今此聖教 或...	병명
13 숙보 43/7/25	疾疾	今春秋晚晚疾疾淹延之日...	병명
14 숙종 45/10/8	火必 升	過用心慮用心則火必升有難鎮定 易致證後之添加必使子一紓此情 然後庶有益於寬抑之道	원인, 치료
15 경종 1/10/14	火熱	竊念火熱上升之候必須待人接物 導宜憂鬱而後火降而身安萬機雖 繁順理應接政合於疎導節宜之方 夫豈有難言之憂有此不敢聞之教 也	치료
16 경종 3/9/20 경수 3/9/20	一時 之火	因一時之火遽有過舉	원인, 증상
17 경종 3/9/21	一時 之火	一時之火有過當之舉筵中既示悔 悟之端	원인, 증상
18 경종 3/10/13	一時 之火	聖意牧存及 殿下自悔 一切歸之 一時之火 大小臣民 驚憂疑念 或 曰 吳君 眞果有病乎 此病不祇 奈國事何	원인
19 영조 6/8/27	疾	后於是涕泣爲日積衰成疾以致壽 筭之不永天理之難諱有如是夫 然 上念宗祚危	원인, 증상
20 정조 20/6/4	太陽 症	子癲在太陽症 似此無揆不詢之說 不堪掛齒	증상

年代	用語	內容	分析
21 정조 24/6/16	隔間 熱火 之宿 証	子始服逍遙散日再進御不知爲幾 貼而此等事亦難於酬應只自內煎 用朝紙爾須則不過再昨之二貼矣 逍遙本是涼劑而又添入芩蓮之屬 則亦非不及於石膏而昨日白虎之 議定或意有沃焦之功矣纔飲便有 熱侯上升之症始自肩背遍及一身 卽服寒冷之物始似少降而令朝則 比昨亦似稍勝矣.....上日然則一貼 更爲煎入大抵專由於隔間熱火之 宿証而近來尤盛不能疎以達之而 然也....	증상, 치료( 逍遙散, 白虎湯)
22 순조 1/1/16	隔火	甚至觸惱然輿轉成隔火然則六月 禍變雖緣臣民之無緣而伊究厥由 患候之初自至於終莫非此賊輩梗頑 不率之罪爲之崇耳	인식
23 헌종 3/11/25	隔火	子本多隔火心不合則非但過於沸 鬱氣輒上升實難堪耐矣	인식

#### IV. 事例研究

##### 1) 사례 1. <선조 37년 8월 7일>

신하의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면서,

"지금 이 어느 때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 평시에도 안 되는 것인데 더구나 지금이겠는가. 다른 임금도 안 되는 것인데 더구나 나이겠는가, 상하가 다 손상이 되는 것으로 소요스러울 뿐이다. 더구나 한 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온갖 약이 효험이 없어 오래도록 대신을 접견하지 않아서 보도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쟁신을 만나지 않아서 보필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이에 마음이 막히고 못욕심이 왕동하는데 두어 칸 방에 홀로 있으면서 날마다 약로를 상대하기만 하니, 장차 이러한 임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슬플 뿐이다. 또 나는 火病을 앓는 것이라서 계사를 보고부터는 심기가 더욱 상하여 喉門이 더욱 폐색되고 痰氣가 더욱 성한데 이것은 좌우의 환시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우선 다른 일은 물론이고 이것이 제일 답답하니, 다시는 아뢰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심기를 애써 억제하여 조양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화병이 병명으로 최초로 기록된 것으로 화병의 인식, 증상, 치료가 비교적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 우선 화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발병의 원인이 업무를 보면서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증상에 대하여 스스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心氣가 불편하고 목구멍이 막히는 듯하고 痰이 많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2) 사례 2. <광해군 2년 4월 23일>

영의정 이덕형을 만난 자리에서

“어려서부터 본래 열이 많아 이것이 쌓여 火症이 걸렸으니 이는 조석간에 생긴 병이 아니다. 대단한 지경은 아니지만 항상 鬱熱症을 앓아 이 때문에 자주 경연을 열지 못하는 것이다.”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지금 별초한 의방이 매우 많아 의관들이 그대로 따라 약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 본원을 잃은 것이니 신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원기를 북돋우어 언제나 水火가 조절되게 한다면 자연 열증은 사라져 쉬이 효험을 볼 것입니다.”

영의정이 화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의학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화병은 어려서부터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므로 발생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며, 질병의 발생이 만성적인 경과 후에 발생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화병의 치료에 있어 원기를 북돋움으로써 자연스럽게 水火가 조절됨으로써 치유가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화병의 원인중에서 水火의 부조화로 말미암아 발생한다는 병리원칙과도 일치한다.

## 3) 사례 3. <숙종 29년 8월 13일>

임금이 갑자기 편치 않았는데, 가슴이 치받듯이 배가 아파서 급히 여러 의관을 부르니 대궐 안이 몹시 어수선하였다. 제조 이유와 김우항이 급히 입시하고 땀을 끈지 한참만에 조금 안정이 되었다. 김우항이 의관에게 살짝 물기를, “이것이 무슨 병입니까?”하니, 의관이 대답하기를 “痲症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몇 년 전부터 이미

뿌리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을 느낄 뿐이더니 어느새 이 지경이 되었다.”하였다. 임금이 또 탄식하기를, “사람이 자고 먹는 것을 제때에 하여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였다. 성질이 너그럽고 느슨하지 못하여 일이 있으면 내던져 두지 못하고 출납하는 문서를 꼭 두세 번씩 훑어보고, 듣고 결단하는 것도 지체함이 없었다. 그러자니 오후에야 비로소 밥을 먹게 되고 밤중에도 잠을 자기 못하였다. 그래서 火症이 날로 성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내가 병의 원인이 있는 곳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또한 어쩔 도리가 없었다.”하였다. 이유 등이 진계하여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잠자고 밥먹는 것을 제때에 할 것을 청했으나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병을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2차적으로 痲症과 같은 병이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화병의 원인으로 불규칙적인 식사 및 수면의 일상생활과 함께 느긋하지 못하고 강박적인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화병의 원인에 대하여 스스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환경적이고 성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화병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4) 사례 4. <현종 1년 6월 30일>

“그대들 뜻은 비록 내 마음에 율화가 치밀도록 충격을 주어 병의 뿌리를 더 더치게 하고 싶은 모양이나, 나의 생사 안위는 하늘에 매여 있는데 어찌 이 계사로 인하여 더칠 이치가 있겠는가. 그대들 계책이 너무 졸렬하여 개탄스럽노라”

신하가 임금에게 계속 아뢰는 상황에서 대답하는 장면으로 격노함으로 인하여 心熱이 발생됨으로써 병이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분노와 화의 연관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병의 발전을 하늘의 뜻으로 돌리려는 회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화병과 연관된 정서로서 분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근자의 화병연구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5) 사례 5. <속중 31년 11월 8일>

부제학 정호가 함경 감사로 있다가 갈려오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禪位의 명이 내려졌을 때에 미처 상소하지 못하였다 하여 뒤미처 상소해 火症은 오로지 마음이 바른 것을 얻지 못한 데에서 말미암는다고 누누이 경계를 아뢰었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어 성의(誠意)·정심(正心)의 공부에 더욱 힘쓰시고, 마음을 평온하고 고요하게 가져 경계하고 삼가서 수양하는 방도에 소홀하지 마소서. 무릇 사물에 접응(接應)할 때 정(靜)으로 동(動)을 제어하고 간(簡)으로 번(煩)을 제어하여, 희로(喜怒哀)·상벌(賞罰)이 다 마땅할 때에 행해지면, 마음은 안정되고 뜻은 편안해져 火症의 근심은 절로 없어지고, 정신은 완전하고 氣는 퍼져서 화평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효종 대왕께서 연석(筵席)에서 선정신 송시열에게 말씀하시기를, ‘극기(克己)는 먼저 성질이 치우친 곳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내 병통은 잘 노하는 데 있다. 노했을 때 일을 처리하면 번번이 도리에 맞지 않는데, 요즈음 한 방법을 얻었다. 불가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한밤에 노여움이 풀리기를 기다려 처리하는데, 자못 잘못이 적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하셨습니다.

화병을 마음의 병이라고 제시하면서 화병의 극복방법에 대하여 정신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평온하고 고요하게 하여 수양해야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면 화증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분노한 당시에 일을 처리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을 처리할 때 분노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6) 사례6. <정조 24년 6월 16일>

약원의 제신과 대신 및 각신을 불러 접견하였다. 좌의정 심원지 등이 안부를 묻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맨 처음 소요산(逍遙散)을 복용한 뒤로 매일 두 번씩 마셔 몇 접이나 복용했는지 모를 정도인데 이와 같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렵고 그저 속만 탈뿐이므로 조보(朝報)

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그저께의 두 접에 지나지 않는다. 소요산은 본디 량재(涼劑)인데 거기에다가 황금(黃芩)과 황련(黃連) 등을 추가하였으므로 석고(石膏)의 약효보다 못하지는 않으나 어제 백호탕(白虎湯)을 쓰기로 정하여 그것을 마시면 혹시 열을 내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조금 마시자마자 곧 열이 오르는 증세가 생겼는데 어깨와 등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온몸이 다 뜨거워 찬 음식을 먹고 나자 비로소 조금 내려간 듯하였고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듯하다.”

하였다. 외관 정윤교에게 등쪽의 증기를 진찰하도록 명한 뒤에 상이 이르기를,

“일반적인 증세로는 고름은 적고 피가 많이 나오니 피속에 열이 많아 그런 것 같다. 앞으로 무슨 약을 쓰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도제조 이시수가 아뢰기를,

“여러 외관이 모두 어제 저녁의 열증세는 악힘의 발산 때문인 것 같다고 하니, 백호탕을 다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한 접을 더 달여 들어오도록 하라. 대체로 이 증세는 가슴의 해묵은 화병 때문에 생긴 것인데 요즘에는 더 심한데도 그것을 풀어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크거나 작은 일을 막론하고 하나같이 짐목을 지키며 신하들을 접견하는 것까지도 다 차츰 피곤해지는데 조정에서는 두려울 외(畏) 자 한 자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니, 나의 가슴속 화기가 어찌 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선 경들 자신부터 임금의 뜻에 부응하는 방도를 생각하도록 하라.”

화병의 치료에 있어 처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화병의 처방에는 소요산과 백호탕이 있을 수 있지만, 석고가 들어 있는 백호탕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또 화병과 관련하여 증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증상은 피속에 열이 많아서 생긴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7) 사례 7. <현종 9년 10월 3일>

유진의 처의 죄를 논하여, 사형을 면제하고 강계(江界)에 정배(定配)하였다.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유진의 죄를 바꾸어, 가까운 곳에 도배(徒配)하였다.

금부가 성비희의 옥사에 대해서 품지하여 의논을 수렴하였다. 영부사 이경석이 의논드리기를,

“비희가 시역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욕을 한 일도 없다면, 강상죄를 범한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 무겁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율(禮律)에 있어서 그 죄가 마땅히 내보내야 한 데 해당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정리(情理)와 법률(法律)을 참작하여 중도를 얻도록 해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지 않게 해야 할 듯합니다.”

하고, 판부사 정치화가 의논드리기를,

“죄인 비희가 평소 시부모에게 불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어미가 화병이 나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말이 그 남편인 유진의 공초에서 이미 나왔고 보면, 비록 삼성 추국으로 다스릴 수는 없더라도, 또한 그 불순한 죄만을 논하고 말아서도 안 됩니다. 범한 죄와 정상을 참작하여 사형을 면제하고 정배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화병의 발생과 고부간의 갈등을 설명한 내용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화병이 걸리고 결국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렀다는 설명을 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흔히 민간에서 구전되고 있는 “화병 걸려 죽는다.”라는 속설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V. 論 議

화병은 화의 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정확한 용어의 사용에 대한 의학적 고찰은 아직 없다. 또한 전통한의학에서 火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 용어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국의 문헌 뿐 아니라, 중국의학, 또는 북한의학에서 그 사전적 의미가 제시되어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한의학에서 火病에 대한 용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 [경약전서]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질병 가운데 火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기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기전이나 증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전통한의학에서 화로 인하여 발생한 병에 대한 기술은 매우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외부적인 감염으로 인한 火, 감정이 복합되어 발생한 火, 음식으로부터 발생한 火, 피로부터 발생한 火, 담이나 어혈로 인한 火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밖에 화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火證”에 대하여도 언급이 많이 되어 있다<sup>2)</sup>. 그러나 현재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병의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중에서 감정이 복합되어 발생한 화로 국한하여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up>4,5,10,11)</sup>.

전통적인 한의학에서의 설명과는 달리 한국의 민간에서는 빈용되는 질환명으로 화병이 쓰이고 있는데 신경정신과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질환으로 유병율에 있어서도 일반인구의 4.2%를 차지하는 매우 보편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또 이 질환은 분노증후군(Anger Syndrome)으로 미국정신의학회에 보고되면서 한국사람에서 나타나는 문화관련증후군으로 소개되어 있다<sup>16-18)</sup>. 국내의 화병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임상적인 측면과 화병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 문화관련어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화병이라는 용어가 전통적으로 민간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과거에 사용되어오던 화병이라는 용어의 쓰임새를 알아보는 것이 화병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는 화병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화병의 기원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즉 화병이 과거의 문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학서적이 아닌 일반서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하여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화병의 개념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의학적 연구가 목적이 아니고, 과거 문헌에 사용되었던 화병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에 대한 연구이므로 역사적 서적을 총괄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연구의 자료로 삼은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편년체로 엮은 正史이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의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수록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역사 연구 및 의학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우리의 문화와 관련된 문헌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문헌이면서, 그 시대에 대한 폭넓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 왕실에서의 일 외에 신하들의 일이나 일반평민들의 일, 그리고 중국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화병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주로 왕이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왕은 매우 바쁜 일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짜여진 반복된 생활을 하면서도 과중한 업무에 비하여 여가를 즐기는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고, 특히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누리기는 매우 어려웠으므로 많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화병에 대한 내용도 비교적 풍부하게 논술되어 있어 화병의 인식과 증상, 원인 및 병리, 그리고 치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치료처방에 관한 기술이 되어 있어 흥미롭다.

火病이라는 용어는 선조37년(1603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광해군15년(1622년)에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火症(火證)이라는 용어는 광해군2년(1609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영조38년(1761년)에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화병과 연관된 내용을 보면 心의 병 또는 火의 병으로 인식되었고, 心의 병을 의미하는 '心得疾'의 표현으로 중종31년(1536년)에 처음으로 쓰였고, 火의 병과 연관된 '膈火'라는 표현으로 현종3년(1836년)에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火病이나 火症 그밖에 다른 표현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적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조선중기부터는 화병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병의 원인적인 측면과 병리를 살펴보면, 질투의 감정, 번뇌와 격화, 계속해서 놀란 일을 반복한 경우, 마음에 맺혀있는 억울한 일, 마음이 바쁨을 얻지 못하는 것,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일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상실, 답답한 마음이 계속되면서 心氣가 더욱 상하는 것, 지나치게 심려하여 마음을 써서 火가 올라가는 것, 격노로 心熱이 생기는 것, 태양경의 鬱火가 팽배하여 太陽經과 兪구리에 열기가 있는

것,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고 지내는 것이 오래 되고 눈물로써 세월을 보냄으로써 슬픔이 쌓이는 것, 火가 성해서 水가 손상되고 腎이 虛하게 되는 것, 어려서부터 열이 많은 것, 시어머니과 며느리의 갈등,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 것 등으로 정신적인 면을 위주로, 체질적인 소인, 고부간 갈등, 생활습관 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그 원인과 병리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적인 측면은 현재의 화병개념과도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원래 어려서부터 열이 많았다는 것은 체질적인 소인을 언급한 것과 水와 火의 조절의 문제, 腎이 虛함으로써 발생하는 병리적 개념은 한의학적 개념을 그대로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병에 대한 인식과 그 증상을 살펴보면, 몸에 心熱이 있는 것, 평소에도 가지고 있는 화증, 그리고 가슴속에서 화로 일어나는 것 등으로 화병을 인식하고 있었고, 증상으로는 전신이 붓는 것, 喉門이 폐색되고 痰氣가 성하는 것, 증기와 두통, 약간만 노동하여도 놀라고 떨리며 갑자기 쓰러지는 것, 疝症, 咳嗽, 살갓이 사그러지는 것, 구미가 떨어지는 것, 증기가 터진 후에 寒熱이 있는 것, 화로 인하여 깨닫고 살피지 못하는 것, 일시적인 화로 갑자기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 눈병이 생기는 것 등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불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증상을 통칭하여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화병의 증상이 단일하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증상이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현재에 쓰이고 있는 화병이 다양한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증후군임을 감안할 때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적인 측면을 보면 正心, 收心, 養心, 防心 (마음을 바로 하고, 거두어들이고, 기르고, 놓는 것), 복잡한 일을 멀리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 잠자고 밥 먹는 것을 제때에 하는 것, 번거로운 일을 줄여서 간략함으로 번거로운 것을 절제하는 것,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誠意와 正心の 공부에 힘쓰고, 마음을 평온하고 고요하게 가져 경계하고 삼가서 수양하는 것, 절제된 생활, 답답함을 소통시키는 것, 추수 후에 무예를 하고 교외를 거동하는 것,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마음을 안



정시키는 것, 調息, 心火를 식히고 생각을 줄이는 것, 원기를 북돋우어 水火를 조절하는 것 등의 정신의 안정을 중요시하였고, 온천의 방법 및 소요산과 백호탕의 처방이 제시되었다. 치료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안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호흡에 대한 문제, 환경의 변화를 중시하였고, 몸의 원기를 도와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언급된 것은 현재 쓰이고 있는 화병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병이라는 측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만성적인 경과를 밟음으로 인하여 원기를 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화병의 인식, 원인, 증상, 치료에 있어서 현재 민간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병이 조선시대 중기부터 사용되어왔던 내용과 유사함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중 火의 속성을 가진다는 점,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는 점,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 등은 한의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병의 설명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VI. 要 約

화병은 한국의 민간에서 사용되어왔던 병명으로 현재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질병개념이다. 이 병은 [조선왕조실록]에서 1603년(선조37년)에 처음으로 기술된 이래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병에 대한 설명에서는 왕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신하의 일, 일반 평민의 일,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 화병이 조선시대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그 병의 원인, 병리, 증상, 치료에 대한 설명에 있어 전통한의학에서 설명하는 의미와 상관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參 考 文 獻

1. 강만길외: 한국사, 서울, 한길사, 1994
2.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영인본), 探求堂, 1969
3. 김종우: 화병, 여성신문사, 서울, 1997
4. 김종우, 이조희, 이승기, 엄효진, 황의완: 화병에 대한 임상적 연구 - 한의학적 화병 모델을 중심으로-, 대한신심스트레스학회지 4(2):23-32, 1997
5. 김종우, 황의완: 한의학에서 본 화병의 해석,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5(1):9-14, 1994
6. 김훈, 맹웅재: 조선전기 군왕의 질병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0(2):115-181, 1997
7. 문준전, 안규석, 최승훈: 東醫病理學, 서울, 고문사, pp.271-274, 1990
8. 문충모, 김지혁, 황의완: Stress 와 火에 關한 東西醫學의 考察,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9:146-153, 1989
9. 민성길, 남궁기, 이호영: 화병에 대한 일 역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9(4):867-874, 1990
10. 민성길: 화병의 개념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4):604-615, 1989
11. 민성길, 이만홍, 강홍조, 이호영: 화병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의학협회지 30(2):187-197, 1987
12. 박진성, 구병수: 火 및 火病의 意義에 關한 文獻의 考察,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8(1):183-200, 1997
13. 신명호: 조선의 왕, 가람기획, 서울, pp51-64, 1998
14. 열린데이터베이스연구원: CD-ROM 고려사, 서울, (주)누리미디어, 1998
15.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 (주)서울시스템, 1995
1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1994
17. Lin KM.: Hwa-Byung, A Korean Culture-Bound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1):105-7, 1983
18. Pang KY.: HWABYUNG, The construction of a korean popular illness among korean elderly immigrant women in the united states, Culture, Medicine & Psychiatry. 14(4):495-512, 1990

부록: 화병관련 내용의 기술

1. <중종 31/2/1> : 陳의 황후가 질투의 감정에 의해 병이 생기고 얼마 안되어 죽음
2. <명종 11/7/2> : 공주가 마음을 쓰다가 병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놀라는 일 반복하게 하므로 화병이 더욱 심해짐
3. <명종 19/9/17> : 몸이 약한 상태에서 心熱이 있다고 인지
4. <명종 21/9/12> : 의학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율화를 조절하는 방법
5. <명종 21/10/5> : 마음에 맺혀 있는 억울한 일
6. <선조 26/7/15> :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일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상심, 결국 전신이 뚱뚱 붓는 증상이 나타남.
7. <선조 29/4/10> : 가슴속의 율화
8. <선조 37/8/7> : 계속되는 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를 한탄, 답답한 마음이 계속됨, 계사를 보고 나서는 心氣가 더욱 상하여 증상이 심해짐. 증상은 喉門이 폐색되고 痰氣가 성함. 이에 대하여 복잡한 일(계사)을 멀리하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9. <광해 2/4/23> : 어려서부터 열이 많고 이것이 쌓여 火症이 되었다. 이것은 鬱熱과 연관되는데, 원기를 복돋우어 水火가 서로 조절되게 하는 것이 열증을 없애는 방법이다.
10. <광해 10/6/17> : 평소부터 화증이 많으나 신경을 쓰는 일들이 많아지므로 마음이 더욱 근심스러워진다.
11. <광해 11/9/19> : 평소 화증이 많고 있으나 업무가 많아 화증을 심하게 하므로, 추수후의 무예를 하고 교외로 거동하여 풀어야 한다.
12. <광해 12/10/18> : 평소에 화증을 앓고 있는데, 업무를 줄여야 한다.
13. <광해 12/10/22> : 지금의 병은 화증이니 날씨만 따뜻하면 교외로 거동하여 답답증을 풀어야 한다.
14. <광해 13/1/17> : 평소에 화증을 앓고 있는데, 업무를 줄여야 한다.
15. <광해 13/6/16> : 평소에 화증을 앓고 있는데, 업무를 줄여야 한다.
16. <광해 13/6/18> : 평소에 화증을 앓고 있는데, 업무를 줄여야 한다.
17. <광해 15/1/22> : 평소에 화증을 앓고 있는데, 종기는 호전되나 두통은 여전하니, 마음을 편안히 해야 한다.
18. <광해 15/2/19> : 증세가 火病이므로 마음을 편안히 해야 한다.
19. <광해 13/2/19> : 火證이 점차 심해지므로 마음을 편안히 해야 한다.
20. <인조 24/2/5> : 火證이 있어서 약간만 노동하여도 놀라고 떨리며 반드시 하루가 지나야 안정되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증세가 심하여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갔다.
21. <현종 1/6/30> : 격노하게 하여 마음에 열이 치밀도록하면 병이 더욱 심하게 된다.
22. <현종 9/10/3> : 시어머니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화병이 걸려 죽다.
23. <숙종 25/10/4> : 원래부터 화증이 있었다. 슬픔을 당하고, 노심초사하며, 성미가 느긋하지 못하였으며, 생활도 규칙적이지 못했다... 心火는 30년이 된 병으로 어렵다.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정신을 수양해야 한다.
24. <숙종 29/8/13> : 疝症이 있는데,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아 火症이 심해졌다. 그러므로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잠자고 밥먹는 것을 제때에 해야 한다.
25. <숙종 30/12/11> : 咳嗽의 원인이 火症이다. 火症은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병으로, 치료에 있어서 調息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心火를 식히고 생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26. <숙종 31/10/29> : 火와 元氣는 서로 양립하지 못한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살갓이 사그러지는 것을 느끼는데 마음을 편안히 가져야 한다.
27. <숙종 31/10/29> : 화증은 다른 병과 달라서 해마다 심해지므로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선위를 해야 한다.
28. <숙종 31/10/30> : 병 가운데서 화증은 가장 고치기

- 어려운 병으로 살갓이 사그러져도 안전하지 못한 병으로, 이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선위를 해야 한다.
29. <숙종 31/11/1> : 선위에 대하여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하면, 번거로운 일을 줄여서 간략함으로 번거로운 것을 절제하면 절로 효험이 있다.
30. <숙종 31/11/2> : 선위에 대하여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도리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31. <숙종 31/11/8> : 火症은 오로지 마음이 바른 것을 얻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는데,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誠意와 正心の 공부에 힘쓰고, 마음을 평온하고 고요하게 가져 경계하고 삼가서 수양하는 방도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32. <숙종 31/12/15> : 火症의 원인은 화가 성한 것으로 이것은 수가 손상되고 腎이 虛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만병의 근원으로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
33. <숙종 36/1/10> : 화증이 나타나 두통과 구미가 떨어지는 증세가 있다.
34. <숙종 36/1/12> : 종기가 터진후에 寒熱이 있으므로 이것은 화증의 증상인데,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35. <숙종 42/4/10> : 보통 사람도 병을 오래 앓거나 모든 일을 생각하면 울화가 있는데 임금은 더욱 심할 것이다.
36. <숙종 43/1/27> : 화를 다스리는 문제를 가지고 온천이 좋은가에 대한 논쟁에서 거리가 멀고, 열이 오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되었다.
37. <숙종 43/7/24> : 痰疾 즉 열병을 원래 앓고 있어 客火가 있기 쉬우므로 조용히 잘 생각하여 마음속에서 풀어내야 한다.
38. <숙종 43/7/25> : 痰疾 즉 열병이 있지만 자식을 얻은 기쁨이 도움이 된다.
39. <숙종 45/10/8> : 지나치게 심려하여 마음을 쓰면 화가 올라가 증상이 심해지므로 마음을 편안히 해야 한다.
40. <경종 1/10/14> : 火熱이 치솟아 오르는 증상은 답답함을 소통시킨 후라야 몸이 편안해진다. 울화를 소통시키고 조절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41. <경종 1/10/15> : 울화라는 병환을 가지고 일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42. <경종 1/10/16> : 火症으로 인하여 깨닫고 살피지 못한다.
43. <경종 3/9/20> : 일시적인 火로 인하여 갑자기 지나친 행동을 했다.
44. <경종 3/9/21> : 일시적인 火로 인하여 갑자기 지나친 행동을 했으나, 이제 깨우쳤다.
45. <경종 3/10/13> : 후회하면서 일시적인 火의 탓으로 돌렸다.
46. <영조 1/4/9> : 火症으로 점차 심해져 깨닫고 살피지 못했다.
47. <영조 6/8/27> : 聖后가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고 지내는 것이 오래되고 눈물로써 세월을 보냄으로써 슬픔이 쌓여 병이 생겨서 목숨이 단축되었다.
48. <영조 38/5/22> : 세자가 火症으로 인하여 잘못된 행동을 했다.
49. <정조 20/6/4> : 평소 太陽症이 있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50. <정조 23/7/10> : 깊은 생각을 하거나 복잡한 일이 있으면, 太陽經과 옆구리에 열기가 있고 이것이 눈병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太陽經의 鬱火가 팽배하여 나타난 결과로써 학문의 힘이 깊지 못해 의지의 힘이 열기를 제어하지 못한 때문이다.
51. <정조 24/6/16> : 가슴에 해독은 熱火의 병에 대한 치료를 논하면서 소요산보다 백호탕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우선 마음을 편안히 하여 膈火를 없애야 한다.
52. <순조 1/1/16> : 번뇌가 심하여 膈火로 변하였다.
53. <헌종 3/11/25> : 원래 膈火를 가지고 있었는데 울화가 끓어오르고, 화기의 상승하여 참기 어렵다.

=Abstract=

## A Study on the Origin of Hwabyung (Fire Syndrome)

Jong-Woo Kim  
Kyung-Chul Hyun  
Wei-Wan Whang

Dep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Hwabyung is an illness due to stagnated emotio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and is not rare in the area of neuropsychiatric clinics in Korea. It has been widely used among Korean people, and was introduced as culture bound syndrome in DSM-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Hwabyung, and concepts using at past.

Hwabyung is described in "Choson Wangjo Silok" in 1603 (Sonjo 37th year) at first.

The explanation about Hwabyung in "Choson Wangjo Silok" contain etiology, pathology, symptoms and treatmen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meaning through Korean Traditional Medicine.